전북교육청, 학교급식 내실화 '머리 맞대'

학교급식담당자 정책협의회… 내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안내 · 의견 수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3일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담당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학교급식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인성건강과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과 정책 운영 전반을 안내하고, 내실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안전한 식재료 및 납품업체 관리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영양·식생활 지도 강화 ▲학교급식 행정지원에 대한 협의 등이 다뤄졌다.

특히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급식정책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환경급식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급식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 영양교사의 역량제고와 교육공무직원(조리종사원 등)들의 안전성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노동경감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교육청은 2022년도 학교급식 방향에 이를 담아낼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내년에는 학교급식이 진일보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이슈가 됐던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경선 참여자인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2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경선 참여 후보들

"단일후보 선출, 꼭 해낼 것"

전라북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경선 참여자인 이항근·차상철·천호성 후보는 2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세 명은 앞으로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이라는 숭고한 열망에 부응하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단일후보 선출에 대한 모든 것을 전라북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정하는 데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세 후보는 "선출위원회가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북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1천원 기부 조항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세미콜론, 국제 학생 창업 컨퍼런스 '최우수상'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 세미콜론 팀이 제7회 국제 학생창업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동명대 LINC+사업단이 주관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후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석대를 비롯해 국내 8개 대학과 중국·독일·일본 등 5개국 6개 대학에서 총 26개 팀 96명이 참가해 창업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날 우석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세미콜론 팀(허성강·김찬혁·이종민·최종오)은 '긴급상황 대피 알림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IoT Fire Response System)'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세미콜론 팀의 '긴급상황 대피 알림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4차 산업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화재를 쉽게 인지하고 대응해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재 발생 근원지 안내와 소방방화시설 위치 안내 등 화재 시에는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평상시에는 내부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세미콜론 팀은 '긴급상황 대피 알림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또 다른 창업 아이템을 특허 출원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김제 지평선중고분회, 성명서 발표

12월 17일 학생들의 기자회견 · 시위에 대한 전교조 지평선중고분회의 입장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김제지회 지평선중고등학교분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17일 학생들의 기자회견 및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 따르면 5년 전, 분회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했다. 학교법인 원진학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정씨 일가가 많은 돈을 들여 신문 광고도 하고 소송전도 벌이며 그들만의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육청과 경찰·검찰·법원과 언론 기자들과 원불교의 많은 분들에게 자리매김한 진실은 그들의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다.

이에 단 한 마디라도 사과와 반성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정씨 일가는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

재단 이사회는 그들은 제어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거수기 역할을 했고, 수렴청정 체제를 유지했다.

그 중심에는 설립자 A가 있었다. 그는 결국 동생 B를 이사장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지난 12월 17일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그 출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5년 전의 모습과 너무 흡사했다. 게다가 졸업생들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2017년 특정감사 결과 동생 B와 행정실장 C, 교감 D, 교무부장 E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교육청이 요구했지만, 그들 아무에게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행정소송을 했고 그래도 재차 징계를 요구하자 과태료를 내고 끝냈다.

심지어 올해는 중학교에서 E의 새로운 비위 의혹이 불거졌는데, 교육청에서 강력한 해결을 요구했지만 역시 징계위 한번 열지 않았다.

그리고 2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동생 B를 이사장으로 불러들였다.

반면 분회 소속 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본인 소명도 듣지 않고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 우리 분회 교사들은 경찰서에 불려 다니느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

전교조 지평선중고분회는 "학교법인 원진학원은 개인 소유가 아니다. 원불교 교도님들의 정성과, 이 땅에 이 정도 대안교육기관은 있어야지 했던 수많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 모두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이재명 대선후보의 '유보통합' 정책 환영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유보통합'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84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다"며,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라 밝혔다.

특히 "현행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 내용의 편차,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복지부)의 이원화 된 기관 운영, 국공립 유치원의 낮은 원아 수용률 등으로 출발점부터 불평등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유형과 시설의 형태에 따라 교사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급식비 등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황 전 부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발표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교육의 출발선의 평등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지난 13일 보육과 양육, 교육은 완전한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덕암정보고, 드론과 전원 국가자격증 취득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격증 1종 취득

덕암정보고등학교 드론과 1학년 학생 전원이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자격증 1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드론과를 신설한 덕암정보고는 당해 학년인 1학년 20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조종자격증 1종'은 현재까지 출시된 모든 종류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드론 국가자격증이다.

이에 따르면 덕암정보고는 김제시 4차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보조금 3,000만원을 받고, 드론 기술인력 및 기자재를 지원해 학생들에게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했다.

김제시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우수한 드론 인재 자원 확보뿐 아니라 스마트농업 및 4차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